

카카오, 남궁훈-홍은택 투톱 체제 전환

홍 신임대표는 ESG 경영·사회적 책임 강화 집중



홍은택 신임 대표

카카오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홍은택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 공동 센터장을 카카오 각자 대표로 신규 선임했다. 각자 대표 체제로의 전환은 '사회적 책임 강화'와 '기업 가치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란 게 카카오 측 설명이다.

홍 신임 대표는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에서 맡고 있던 ESG 경영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장 전략을 총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집중한다. 남궁훈 각자 대표는 기존과 동일하게 카카오 서비스 및 비즈니스를 총괄하며 글로벌 확장을 주도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전념한다. 홍 대표가 맡고 있는 공동체얼라인먼트 공동 센터장과 카카옴팩트 재단 이사장직은 유지된다.

홍 대표는 "카카오가 그간 만들어왔던 혁신과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가 가진 기술과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아갈 것"이라며 "카카오가 이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비즈니스도 지속 성장하는 기업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LG전자 '울트라PC 엣지' 노트북 출시

LG전자는 'LG 울트라PC 엣지' 노트북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장 두꺼운 부분의 두께가 16.7mm에 불과한 슬림 디자인에 모서리를 직각으로 마감하고, 제품 외관은 차콜그레이 색상의 메탈 소재를 더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다. 신제품은 16인치(16U70Q)와 14인치(14U70Q) 2가지다.

대표 모델인 16인치 제품은 72와트시(W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도 무게가 약 1470그램(WQXGA해상도 패널 탑재 기준)에 불과해 휴대성도 좋다.

LG전자는 15일 온라인브랜드숍(OBS)을 비롯해 무신사, 29CM 등 온라인 쇼핑몰과 전국 오프라인 가전 매장에서 16인치 모델 판매를 시작한다. 14인치 모델은 내달 중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출하가는 16인치는 109만~190만 원, 14인치는 104만~160만 원이다. 김명근 기자

LG생건 '피지 웃감 손상 줄이는 세탁세제' 출시



LG생활건강이 '피지(FiJi) 웃감 손상을 줄여주는 세탁세제'(사진)를 내놓았다. 중성 포물리에 섬유보

호성분을 첨가해 세탁 후 웃감 변형과 색바래를 방지한다. 식물성 계면활성제 함유 및 탁월한 세척력으로 생활 얼룩과 냄새 원인을 제거한다. 한국비건인증원의 비건 인증을 획득해 윤리적 소비 기회를 제공한다. 16~18일 GS샵에서 50% 할인가로 선로딩한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21일 발표 앞둔 새 정부 첫 세제 개편안

“법인세 낮추고 소득세 부담 완화”

21일 발표 예정인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핵심은 민간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것이다. 타 국가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은 낮추고, 최근 부담이 크게 늘어난 부동산 보유세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다시 낮춰 반도체·백신·이차전지 등 세제 지원 중부세 낮추고 자산규모로 세금 부과 중산층 위한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올려

●법인세 낮추고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먼저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는다.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민간 성장을 이끌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재 25%에서 22%로 3%p 낮아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올렸던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또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 체계도 손본다.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해 국내·외 사회사 부담을 축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백신,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현행 6~10%에서 8~12%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중견



21일 발표 예정인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민간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부담이 크게 늘어난 부동산 보유세를 완화할 방침이다. 사진은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라인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시스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 주요 내용		
	종전	개편 후
중부세	1.2~6.0%	0.6~3.0%
다주택자	(중과세율)	(기본세율)
중부세	11억 원	14억 원
과세 기준선	(공시지가)	
법인세 최고세율	25%	22%
소득세	8단계	중·하위
	과세표준 구간	구간 조정

기업에 적용했던 세액공제율과 같은 수준이다.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하고자 기업 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증여세 납부 유예 제도도 신설될 전망이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등 규제성 조세 제도도 합리화한다.

●부동산 세제,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

부동산 세제의 경우,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중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

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 재산세는 공시가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구간별로 0.05%p씩 세율을 깎아주고 있다. 여기에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돌리면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올해 세 부담은 2020년보다 더 줄게 된다. 해당 가구는 1주택자의 약 91%인 896만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부세의 경우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공시가격이 2021년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이 비율까지 조정하면 세 부담을 2020년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와 함께 중부세 과세 기준선도 공시지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간다.

중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중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다주택

증과가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중산층 세제 지원 확대

중산층을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는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설정해 구간별 6~45%의 기본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5000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등이다. 여기서 중·하위 구간의 과표를 높여 중산층의 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리고,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해 장기 근속 퇴직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을 합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영화 관람료도 합산한다는 것이다.

밥값 부담을 덜기 위한 세제 개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근로소득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이후 19년째 유지돼 그간 이뤄진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장재훈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이 2022 부산 국제모터쇼 보도발표회에서 아이오닉 6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 현대차

“유려하고 미래지향적 디자인”...현대차, ‘아이오닉 6’ 세계 최초 공개

‘2022 부산 국제모터쇼’서 공개 유선형 디자인·넓은 실내 눈길 사륜 모델의 경우 제로백 5.1초 28일부터 사전계약...9월 판매

‘2022 부산 국제모터쇼’를 가장 뜨겁게 달군 모델은 현대차 아이오닉 6다.

현대차는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모터쇼를 통해 아이오닉 브랜드의 두 번째 모델인 아이오닉 6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현장에서 직접 살펴본 아이오닉 6는 크로스오버 모델로 활용성을 극대화한 아이오닉 5와는 또 다른 차원의 신선함을 안겨줬다. 우선 디자인 콘셉트부터 다르다. 미래 전동화 시대를 이끌 새로운 디자인 유형인 ‘일렉트리카이드 스트



‘아이오닉6’ 인테리어.

림라이너(Electrified Streamliner)’를 기반으로 한 유선형 디자인은 실차가 훨씬 더 유려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전체적인 차량 비율이 기대 이상으로 완성도가 높다. 차량 곳곳을 장식한 파나메트릭 픽셀 라이트도 아이오닉만의 정

체성을 더욱 뚜렷하게 해주는 요소들이다.

실내 공간은 더 파격적이다. ‘Mobile Personal Studio(무한한 잠재력을 깨우는 사용자 중심의 공간 경험 제공)’라는 개발 콘셉트를 적용했는데, 아이오닉 5보다 더욱 미래지향적이다.

특히 실내 분위기를 좌우하는 엠비언트 무드램프에 공을 들였는데, 상단과 하단에 넓게 배치한 실내조명은 6가지 전문가 추천 테마를 포함해 4096가지 조합으로 원하는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 차량 속도에 따라 밝기가 달라지는 설정도 가능하다.

실내 공간은 광활하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넓다. 4855mm의 긴 전장과 2950mm의 긴 휠 베이스는 대형 세단 수준의 2열 공간을 완성해냈다. 일반 시트 대비 30% 얇은 슬림 시트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무릎 공간은 사람이 한 명 더 앉아도 될 정도로 넓다. 다만 프랭크(앞좌석) 트렁크 공간은 생각보다 좁았다.

아이오닉 6는 77.4kwh 배터리를 탑재한 롱레인지 모델과 53.0kwh 배터리를 장착한 스탠더드 두 가지 모델로 운영된다. 후륜과 사륜 모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륜 모델의 경우 0~100km/h 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1초다.

아이오닉 6의 가격은 5500만 원~6500만 원대로 책정했다. 전기차 보조금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수준이다. 28일부터 사전계약에 돌입해 9월 중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대차가 밝힌 아이오닉 6의 올해 판매목표는 1만 2000대다.

부산 |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